

## 한일비즈니스서밋라운드테이블(BSR) (08.04.21)

한일경제계의 리더는 양국 정상에 요청을 받아 동경에서 「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」을 개최, 양국 경제계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.

### □ 한일 BSR 개최

- 한일경제계의 리더는 양국 정상에 요청을 받아 동경에서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(08.04.21)
- 양국 경제계는 올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, 외국인 투자 환경 정비 및 개선 등을 비롯한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시
- \* 동 회의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간 보다 깊은 경제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며, 앞으로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

### □ 협의 내용

- 한일경제계는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해 양국의 투자환경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, 이 목적을 달성하고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의기관을 설치하기로 합의
- 투자환경 정비와 개선에 대한 과제를 발굴, 양국정부에 건의,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과 투자교류 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책 논의 예정
- 한일 경제계는 환경 및 에너지절약, 지역간 산업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기업의 제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정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

- 특히 환경문제는 한일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, 에너지효율 향상,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합의
- 한일 경제계는 양국의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중소기업간 무역이나 기술협력, 인재협력, 그리고 조인트벤처 등과 같은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계기관의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촉구하기로 합의
- 한일경제계는 한일 FTA/EPA 체결이 양국관계 및 양국경제에 호혜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, 한일 FTA/EPA 교섭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에 양국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로 합의
- 향후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이나 국제사회에서 양국 경제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기로 합의
- 양국 정부 및 관계단체의 협력을 얻어 조속한 실무협의기관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행함

## □ 양국 의장

- 한국측 의장은 조석래 전경련 회장, 일본측 의장은 미타라이 후지오 (御手洗富士夫) 일본 게이단렌(経団連) 회장이 맡고 있음

## □ 성과

-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돼왔던 경제단체별 대일 협력 사업이 한일 양국간 전반적인 산업 협력의 틀 속에서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계기 제공
- 대일무역 역조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한국투자 촉진이나 한국산 부품소재

구매 확대, 관련분야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함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團體聯合會(<http://www.keidanren.or.jp/indexj.html>)